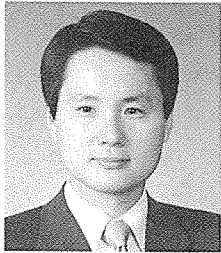


협진 통해 심미적 우수성 확보



김 명 진
대한심미치과학회 부회장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환자들의 온라인 상담을 접하다 보면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심미치과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가령 블리칭의 결과에 대한 문의나 라미네이트의 장 단점 등 어찌 보면 치과 의사들의 지식과 임상적인 경험에 대해 긴장감을 줄 만한 문의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일반 대중들의 덴탈 아이큐가 과거와 달리 매우 빠르게 높아지면서 동시에 치료에 대한 기대치도 비례적으로 높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미에 대한 관심은 치과영역에서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치과계의 현실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직도 많은 치과 의사들이 과거에 행하던 전통적인 치료와 재료사용에 만족해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상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가는 재료와 장비의 변화에 대해 둔감한 듯 보인다.

신임상기술과 재료·장비에 좀더 적극적이길

물론 인체를 다루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오랜 시간의 임상결과에 대한 뒷받침이 없이 이루어 진다면 큰 문제이겠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라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치과 의사들의 교육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치과대학에서의 커리큘럼 가운데 심미치과학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분야가 거의 모든 임상영역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점을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심미치과영역은 대학에서 거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졸업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수복재료로 치아색깔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전치부 보철을 포세린으로 정성껏 치료해 주는 것 이상으로 심미치과 영역은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고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치과의료인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환자·기공소 등 쌍방향 소통 발달

그러면 다음의 몇 가지 영역에서의 심미치과학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Communication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에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한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이제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쌍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해 졌다.

Intraoral camera는 더 이상 첨단 장비가 아니며

Digital camera의 활용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단지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기공소와 치료실 사이에서도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오가고 있다. 심미치료의 동기유발과 교육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첨단 도구들이 계속 개발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 사용중인 시뮬레이션도 심미치과영역에서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보철, 보철 영역에서 특별히 다루고 싶은

**최근의 국제적인 심미치과학회를
참가하면서 공통으로 느낀점은
여러 임상 전문과에서 탁월한 연자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분은 Minimal Intervention과 Adhesive Dentistry이다. 대학에서 배운 G. V. Black의 와동분류는 새로운 개념의 출현으로 그 의미를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복물의 유지를 위해 건전치질을 삭제하고 불확실한 우식층의 제거를 위해 필요이상으로 치아를 삭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지 받기 곤란한 개념이다. 수복물과 치아가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접착시스템과 정확한 우식 부위를 눈으로 식별하거나 디지털로 인식시켜주는 Caries Indicator 시스템의 도입이야말로 심미치과영역에서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Laser, Fissurotomy bur 혹은 1/2 round bur와 같이 미세한 절삭기구로 우식 부위만을 삭제하고 접착과 심미수복을 하는 것, 그리고 Non-prepared PLV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개념에 맞는 심미치료 일 것이다. Bleaching이야말로 Minimal Intervention의 개념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치료라는 데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없다.

임플란트 영역의 심미치과 '혁명적'

보철영역에서는 생체적합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내구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이

루어져 가고 있고 단연 All ceramic의 비중이 높아져 갈 것이다. All Ceramic crown외에 Resin 혹은 Porcelain inlay도 resin cement의 발전과 함께 점차 늘어가리라 예상된다.

제작방법에 있어서 첨단의 장비인 Celay 시스템 혹은 CAD-CAM과 같은 장비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수복재료의 물성이 좋아지고 적합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게 됨과 동시에 더 빠르고 더 쉬운 방식의 진료료가 보편화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와 연관된 영역에서의 심미치과학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겪어 왔고 앞으로 누구도 미리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임플란트의 골 유착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슈는 단연 심미적인 임플란트의 수술과 보철수복 그리고 사후 관리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이미 치간 유두의 회복과 연관된 많은 연구와 임상적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치주영역에서의 연조직 치치와 관리는 탁월한 심미성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될 것이다.

끝으로 'Esthetic Excellence'를 추구하는 모든 치과의사들은 Interdisciplinary treatment approach의 개념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국제적인 심미치과학회를 참가하면서 공통으로 느낀점은 여러 임상 전문과에서 탁월한 연자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을 같이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뜻밖의 문제해결과 서로 보완적인 치료과정을 통해 탁월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연자들과 견줄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한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도전과 연마 그리고 특별히 재료와 장비의 발전과 연관된 최신 정보에 대해 귀와 눈을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미래의 심미치과를 꽃 피울 주역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지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